

강의 주차	강의 제목	수업 유형	평가
1주차 (03월 10일)	강의 계획 및 설명	강의 설명	출석 15% / 참여 10%
2주차 (03월 17일)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론 강의	"
3주차 (03월 24일)	미디어 기능과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이해	이론, 토론, 실습	и
4주차 (03월 31일)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등에 대한 이해	u	и
5주차 (04월 07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u	u
6주차 (04월 14일)	비판적으로 미디어 읽고 쓰기	u	u
7주차 (04월 21일)	디지털 시민성이란?	u	u
8주차 (04월 28일)	중간고사	-	30%
9주차 (05월 05일)	미디어 리터러시 알아보기	이론, 토론, 실습	출석 15%, 참여 10%
10주차 (05월 12일)	인포데믹스의 발생과 미디어 환경	u	u
11주차 (05월 19일)	인포데믹스 생산・유통・소비	u	u u
12주차 (05월 26일)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와 토론	u	"
13주차 (06월 02일)	알고리즘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u	"
14주차 (06월 09일)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	u	u
15주차 (06월 16일)	미디어 리터러시 등에 대한 발표 및 종합 토론	종합 토론	과제 등 15%
16주차 (06월 23일)	기말고사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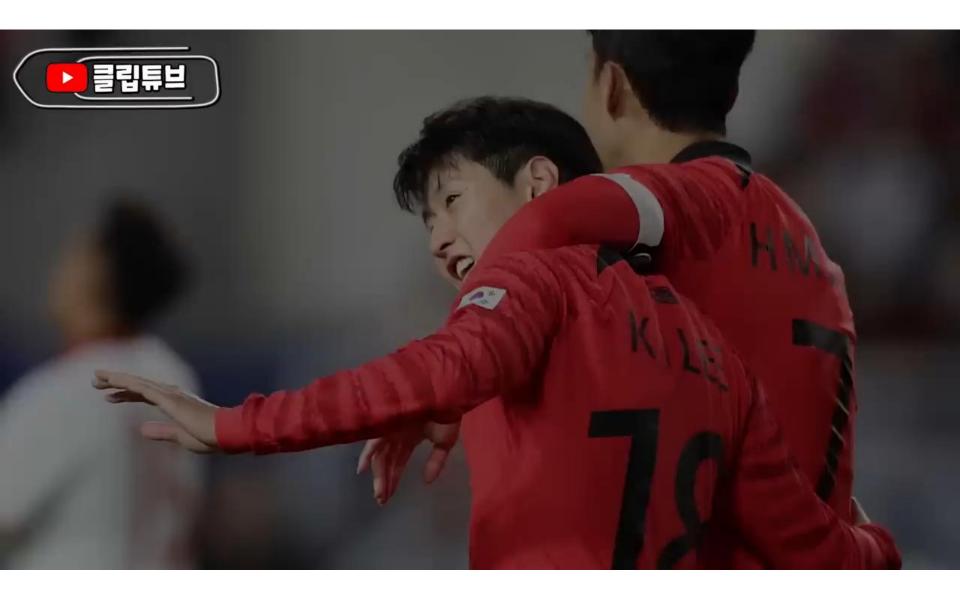


# 인포데믹스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

홍종윤 외, 2022. 세상을 바라보는 눈, 미디어 리터러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키우기





"감히 쏘니를 건드려?!"음바페 결국 이강인 손절 폭탄발표, PSG 선수단 집단행동 프랑스 발칵!



클립튜브 **⊘** 구독자 33.3만명

가입



1.9만



리 공유

业 오프라인 저장

...

조회수 1,209,346회 2024. 2. 17.

앙상 시정해수서서 감사합니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기: https://url.kr/tWQ4p5

#### 朝鮮日報

## '이강인 가짜 뉴스'로 유튜버 7억 돈벌이

2주새 허위 콘텐츠 361개 쏟아져 조회수 6940만 건에도 규제 손놔

카타르 아시안컵 기간 한국 축구 대표 팀 내부 불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 에 대한 가짜 뉴스 영상이 유튜브에 범람 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만든 제작자들이 2주 만에 7억원을 벌어들였다는 분석까 지 나왔다.

유해 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스타트

업 파일러는 3일 "축구 대표팀 내 충돌이 첫 보도된 지난달 14일 이후 2주간 195 개 유튜브 채널에서 이강인을 주제로 한 가짜 뉴스 콘텐츠 361개가 게재됐다"면 서 "해당 영상의 총 조회 수는 6940만회 로, 7억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 정된다"고 밝혔다.

가짜 뉴스 영상들은 자극적인 제목과 미리 보기 이미지(섬네일)로 조회 수를 끌어올렸다. 구독자 6만명을 보유한 '오 늘 이슈'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19일

'(속보)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토어 전면 중지 확정! 열받은 구 단주 이강인 2군행 발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5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채널은 최근 2주간 해외 축구 가짜 뉴스 관련 영상 26개를 게재하며 330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가 가짜 뉴스 범람 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면서 구독자 2024년 03월 04일 02면 (종합)



지난달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강인 선 수 관련 가짜 뉴스 콘텐츠 미리 보기 이미지.

와 조회 수를 높이고 광고 수익을 벌어 들이는 채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유튜브는 적발된 경우에 한해 광고를 붙 이지 않는 정도의 조치만 하고 있다.

안상현 기자

(22.9+7.5)cm

#### 한국일보

2024년 03월 05일 27면 (오피니언)

#### '이강인 가짜뉴스' 7억 돈벌이… 방심위 역할 다하고 있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내부 다툼에 연루됐던 이강인 선수와 관련해,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생산으로 2주 간약 7억원의수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린 선 수에게 악담을 퍼붓는 가짜뉴스는 신고를 해도 계속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허위임에도 조회수가 잘 나와 돈 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에 신속함을 보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작 이런 가짜 뉴스차단에 굼뜬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동영상 콘텐츠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업 '파일 러'에 따르면, 지난달 14~27일 195개 유튜브 채널에서 이강인을 주제로 한 가짜뉴스 콘텐츠 361개가 게재됐 다. 총조회수는 6,940만8,099회에 이르며, 조회수 기반 수익은 약 7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광고가 삽입되면 수 익은 더늘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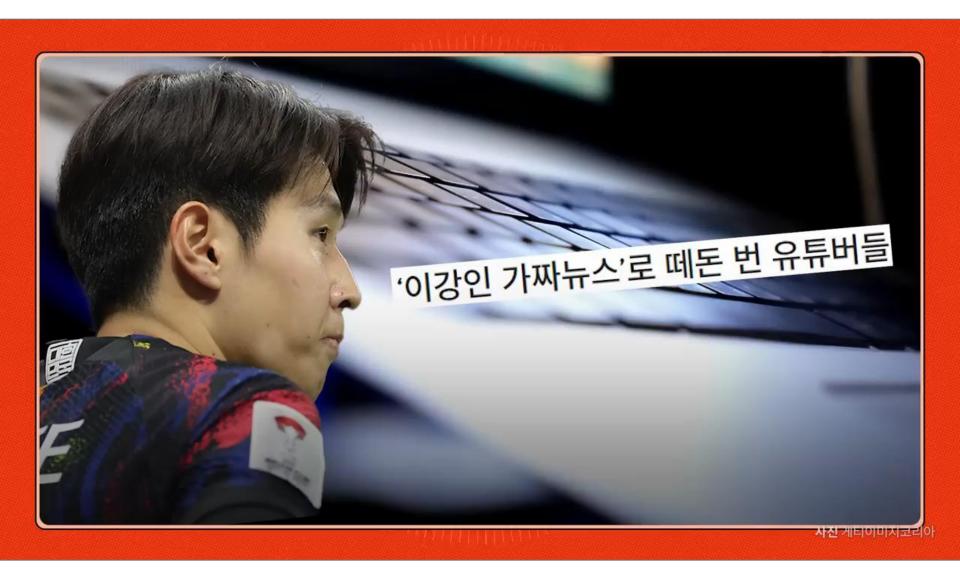
'이강인, 손흥민 손 부러뜨린 영상 유출', '이강인 유니폼 안 팔린다… PSG 방출 임박' 등 제목부터 자극적이고 무분별하다. '이강인 280억 계약 해지, PSG 서울스

토어전면 중지 확정!'이라는 가짜뉴스 게재 채널은 21 개 콘텐츠를 올려 한 달간 1,400만~3,200만 원가량 이 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방심위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최근 '가상으로 꾸며 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을 틱톡 등에 요청해서 접속 차단했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출근길을 중계한 '지각체크' 유튜브 영상도 접속 차단됐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심의, 청부 민원 의혹 등으로 안팎에서 삐걱대고 있다. 그럴수록 본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강인 가짜뉴스'만 해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권 비판 콘텐츠 제재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 묻지않을 수 없다. 과거 자료를 보면, 구글이 유튜브 제재에 소극적이라 방심위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시정 요청 목록이라도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16.3\*10.4)cm



#### 한국경제

2025년 04월 24일 25면 (사회)

# 6070 '유튜브 중독' 위험 수위 … 필터버블에 갇혔다

<특정 성향 강화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 위험 수위라는 의료계 진단이 나왔다.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를 활용한 뉴스 소비에 의존해 정치 편향이 굳어지는 '필터버블'(특정 성향 강화)에 갇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중독연구 권위자인 이해국 의정 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23 일 '노인세대 디지털 미디어 중독'을 주 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층은 다 른 연령보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얻은 정 보가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 하기 위해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빠지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이용



뉴스 콘텐츠 반복적 소비 알고리즘이 정치편향 굳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터넷 을 검색할 때 유튜브 등 동영상을 주로 이 용하는 비율이 60~70대에서 가장 높았 다 고령층은 인터넷 검색시 가장 신뢰하 는사이트로도 유튜브를 꼽았다. 노인들은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이 길진 않지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튜브에 더 많이 의존했다.

쉽고 재밌는데다 비용도 들지 않는 유 튜브의 속성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노 인들이 주로 뉴스만 소비하는 것은 문제 로 꼽혔다. 비슷한 성향의 영상을 노출하 는 '알고리즘'과 만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 교수는 "정치 성향이 일치 하는 뉴스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는 '보상' 이 강화된다"고 했다. 알코올, 도박 등에 중독되는 것과 같은 패턴이 유튜브 의존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폐해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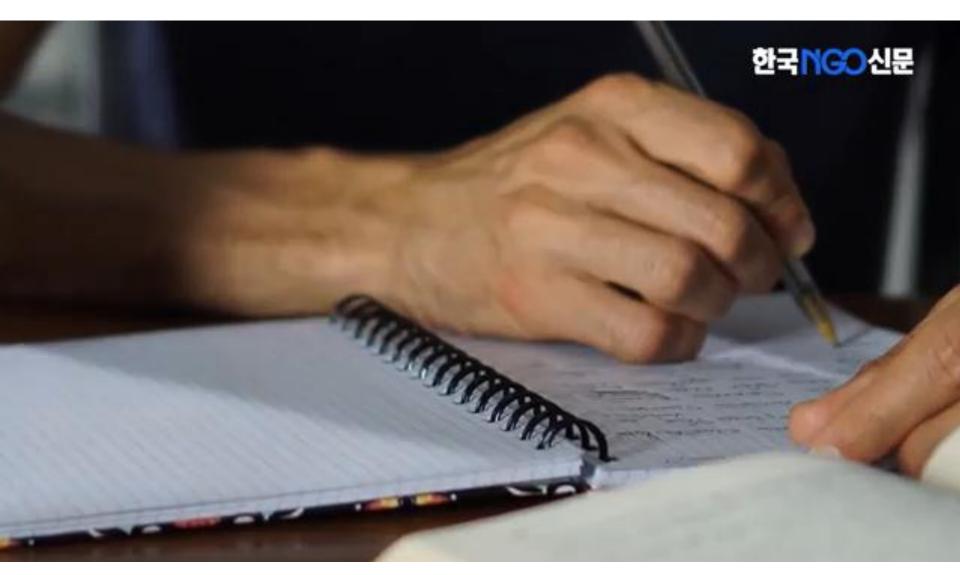
예방 백신을 믿지 않고 잘못된 의료정보를 맹신하는 '인포데믹(정보+감염병)'도 그중 하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각국 정부는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해 '디지털포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국 내에선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중독예방 정책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

'깔때기 효과'처럼 빠질수록 점점 더 급속하고 심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미디어 중독은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게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 교수는 "지역기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늘리고 유튜브 등에 담배처럼 '편중된 콘텐츠에 몰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23.1+10.2)cm

한국NGO신문





https://www.youtube.com/watch?v=AuVERm65310



https://www.youtube.com/watch?v=E08a19BApN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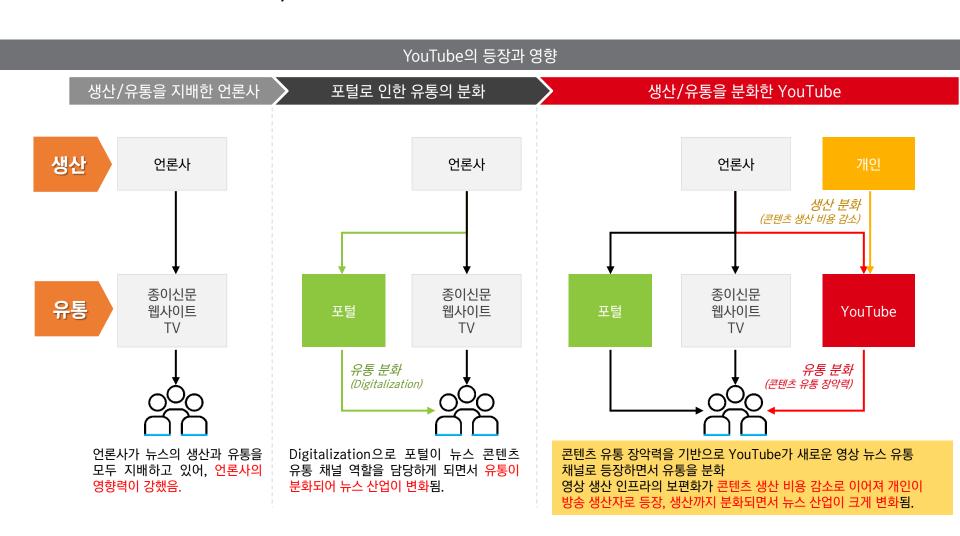


③조사기간: 2019, 10, 27(일) ~ 30(수) / 조사지역: 전국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본수: 1,000명 / 응답률: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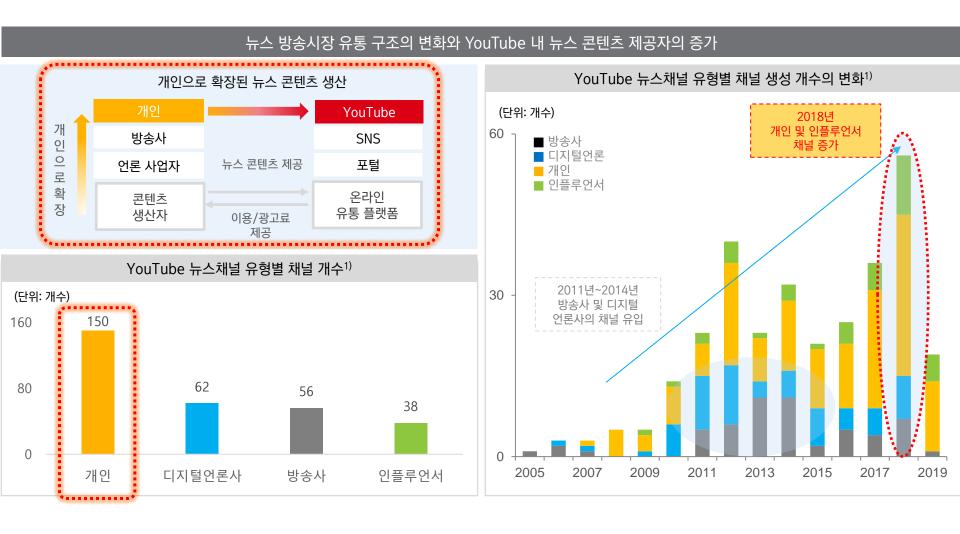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 표집틀: RDD무선(85%) / RDD유선(15%) / 조사방법: ARS 자동응답조사 ◎보정방법: 2019년 9월말 현재 행자부 주민등록인구비례(셀가중) / 조사기관: 리서치뷰 / 조사주관: 미디어오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새로운 뉴스 소비의 장, YouTube의 등장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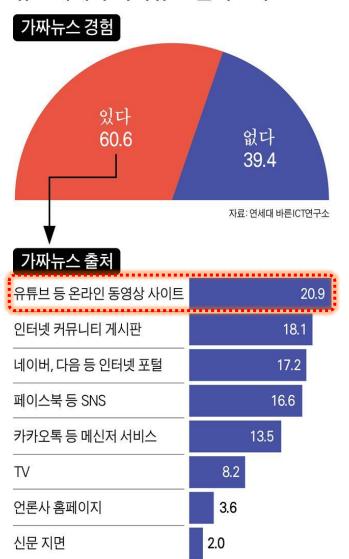
#### 새로운 뉴스 소비의 장, YouTube의 등장과 영향



'개인'으로 확장된 뉴스 생산ㆍ유통 환경.. 허위 정보(가짜 뉴스 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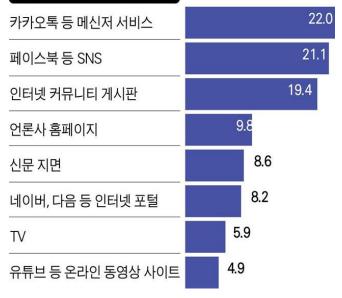
뉴스매체와 가짜뉴스 인식조사(단위:%)



####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456342864

#### 가장 불신하는 뉴스매체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뉴스 이용률(복수응답) (한국, 47개국) (단위: %) 한국 47개국 평균 51 +1pp +1pp +1pp 12 9 4 0 O **P** 

출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메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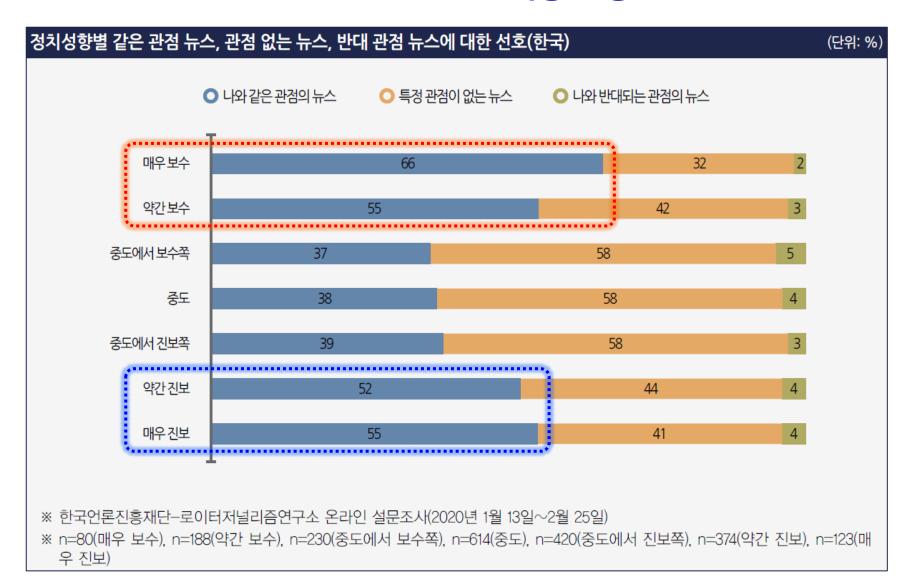
왓츠앱

필터버블(Filter Bubble)은 대형 인터넷 정보기술(IT) 업체가 개인 성향에 맞춘(필터링된) 정보만을 제공하여 비슷한 성향 이용자를 한 버블 안에 가두는 현상을 지칭한다.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인 일라이파리저(Eli Pariser)가 쓴 책 《생각 조종자들(The Filter Bubble)》에서 제기된 개념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5807275&cid=59277&categoryld=65525

확증 편향(確證偏向)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ld=2211786&cid=42107&categoryld=42107



#### Filter Bubble & 확증 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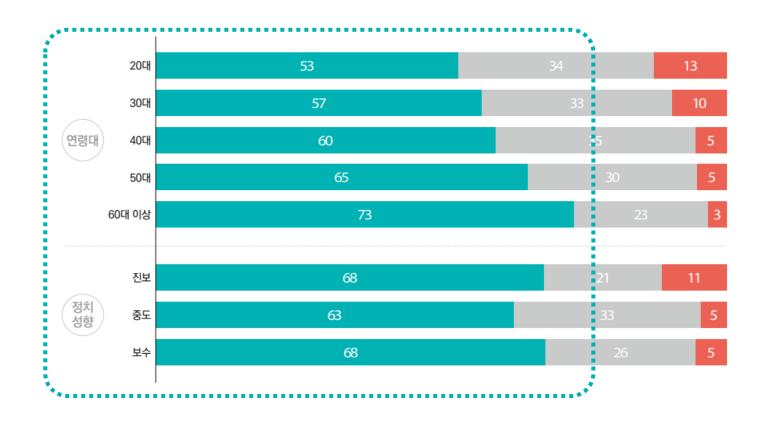


#### Filter Bubble & 확증 편향

• 연령대별, 정치성향별 인터넷 허위정보에 대한 우려(한국)

(단위: %)





출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 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

#### Filter Bubble & 확증 편향

#### 東亞日報

2024년 11월 04일 B04면 (종합)

# "유튜브 뉴스 자주 볼수록 정치양극화 심해져"

최지향 교수 '이용자 분석' "기성언론에 반감도 높아"

유튜브 뉴스를 자주 소비하는 사람들은 기성 언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주 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가 방송통신연구에 기 고한 논문 '유튜브 뉴스 이용자는 누구인가'에 따 르면 유튜브 뉴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가 전 국민 설문 데이터(응답자 1713명) 를 활용해 유튜브 뉴스 이용자의 △기성 언론에 대한 태도와 이용 정도 △정치적 태도 △시민성을 다방면으로 분석한 결과 뉴스 과이용자의 기성 언론에 대한 반감 값은 3.37로 유튜브 뉴스 비이용자(3.17)와 간헐적 이용자(3.19), 정기적 이용자(3.21)보다 높았다.

유튜브 뉴스 과이용자들은 기성 언론에 대해 반 감이 높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기성 언론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과이용자들의 신문 이용 정도는 2.94였지만 비이용자들은 1.72였다. 지상파TV는 5.86 대 5.19, 포털은 6.49 대 5.45로 나타났다.

정치적 양극화 값도 유튜브 뉴스 과이용자가 48.27로 비이용자(31.53), 간헐적 이용자(34.29), 정기적 이용자(37.52)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14.2+9.3)cm

# 디지털 미디어 환경 기반의 허위 정보(가짜 뉴스 등) → Why = 돈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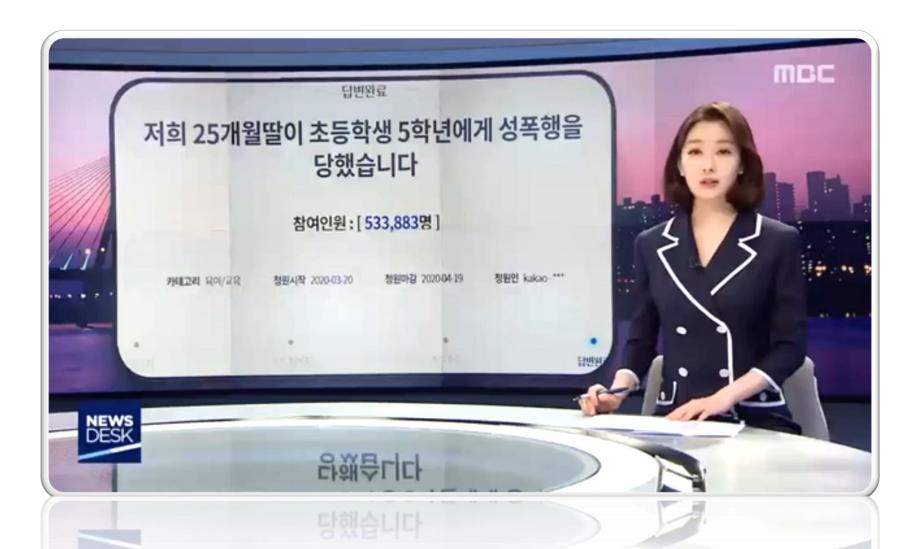
# 디지털 미디어 환경 기반의 허위 정보(가짜 뉴스 등) → Why = 돈벌이



[YTN] 가짜 '내돈 내산' 없앤다...유튜버 '뒷광고' 첫 제재법 발의 (2020년 8월11일)

https://www.youtube.com/watch?v=Ru-IK8uCcnA

"5학년이 25개월 딸 성폭행" 청와대 청원은 '가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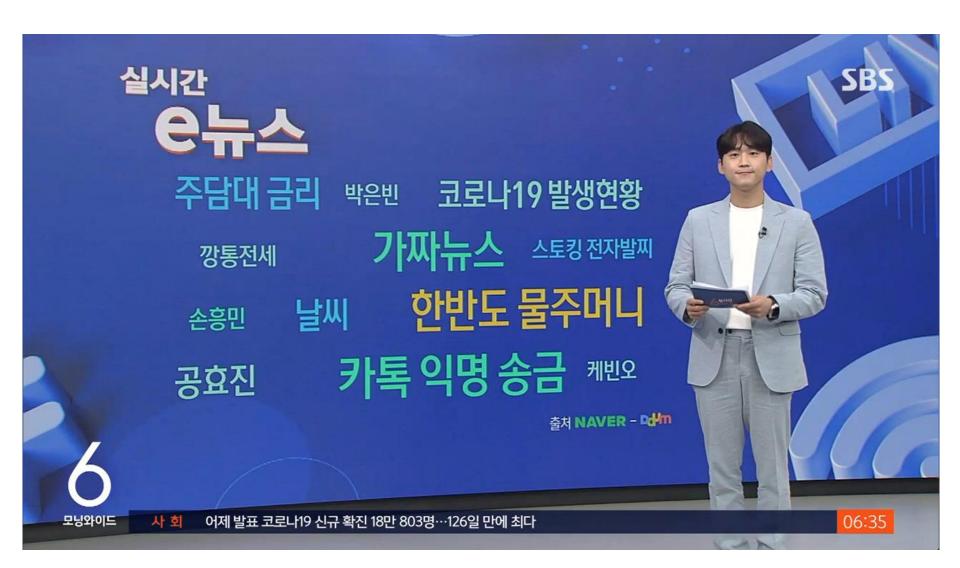
#### KTV '허위청원 게시자..처벌은?'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01027



#### 2022년 8월18일 SBS 6시 뉴스

http://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64003&fbclid=IwAR0SYVho2xlGLaBab2ZhyNDLjdsomvGyj25qZBZbjTmZgxfZO6jYb-L6\_kQ



#### '가짜 뉴스' 유통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틱톡'

https://bit.ly/3Fwb8QK

🎇 미디어오늘 PiCK | 2022.08.13. | 네이버뉴스

#### 틱톡에서 '뉴스'보는 시대, 이대로 괜찮을까

이 나이대 청년 중 27%가 **틱톡**을 통해 **뉴스**를 소비했다. BBC **뉴스**채널보다 10%p 높은 수치였다. **뉴스** 플랫폼으로서 **틱톡에** 주목한 보고서는 이 뿐이 아니다. 영국 ...



메니 2022.09.28.

#### [special]더 짧고 강렬한 숏폼 동영상, 명과 암은

숏폼 열풍,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숏폼 콘텐츠 열풍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가짜 **뉴스'**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 question

여러분은 다음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해

'Fact Check' 가 가능할까요?

#### [성창경TV] 나훈아가 보여준 부정선거 메시지

https://www.youtube.com/watch?v=ePthE6X5qqc&feature=share 조회수 119,285회 / 업로드 2020. 10. 3.



## answer

이런 주장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 )이다.

- 1) 진실
- 2) 거짓
- 3) 잘 모르겠다



# **But..**

자신과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하는 뉴스 이용 편향성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

